

제 6강 신화와 민담의 이해

1. 민담과 무의식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민담들은 C.G. 융(1875-1961)의 분석심리학을 적용하여 해석될 것이다. 분석심리학은 ‘심층심리학(Tiefenpsychologie, Depth-Psychology)’의 하나이다.¹⁾ 심층심리학자들은 정신이 의식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식과 나란히 또 다른 정신 영역의 활동이 있음을 증명해 왔다. 마침내 의식과 함께 하는 정신 영역은 ‘무의식’으로 명명되었다. 무의식적 정신 영역은 현상적으로 가시화 되어야 알려질 수 있으므로 심층심리학자들은 정신의 현상에 주목하게 된다. 심층심리학자들이 주목하게 된 정신의 현상들은 주로 꿈, 공상, 환영, 신비 체험들, 임상 증상들 그리고 신화와 민담들이다. 이들은 모두 의식의 산물이라 할 수 없는 무의식적 정신의 자발적 산물이다.

심층심리학자들이 꿈 다음으로 신화나 민담에 주목하게 된 것은, 꿈에 드러나는 모티브가 고스란히 신화나 민담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신분석학에서 주로 ‘외디푸스 콤플렉스(Ödipus-Komplex)’라는 현상으로 논의되어 왔다. 오늘날 신화나 민담의 연구에 심층심리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듯이 보인다. 융이 『리비도의 변환과 상징』(1912)에서 정신의 현상을 신화와 관련시켜 심리학적으로 해명했을 때, 사람들은 그가 신화에 관한 연구를 한 것으로 보았다. 융은 인간의 보편적 심성에 관한 탐구를 하면 저절로 신화나 민담과 연결된다고 설명하였다.²⁾

신화와 민담으로 드러나는 정신의 현상은 개별 인격의 기초가 되는 정신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다. 융은 이처럼 개별 인격의 기초가 되는 정신 영역을 ‘집단무의식’이라 부르고, 인류 공동의 집단적 보편적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인격의 개별적 특성으로 드러나는 무의식은 ‘개인무의식’이라 부르며 ‘집단무의식’과 구분하였다.

어느 정도 표면에 있는 무의식 층은 명백하게 개인적이다. 이를 우리는 개인무의식(das persönliche Unbewußte)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개인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이나 습득에 의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있는 더 깊은 층의 토대 위에 있다. 나는 ‘집단적’이라는 표현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이 무의식이 개인적이지 않고 보편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개인적 정신과는 달리 모든 개인에게 어디서나 똑같은 내용과 행동 양식을 나타내도록 만든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초개인적 성질을 지닌 보편적 정신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심혼적 존재는 오직 의식될 수 있는 내용으로 드러남으로써 인식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한에서만 무의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개인무의식의 내용은 주로 감정이 강조된 콤플렉스인데, 이것은 정신 생활에서 개인적으로 친숙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집단무의식(das kollektive Unbewußte)의 내용은 소위 원형들(die Archetypen)이다.³⁾

1) 심층심리학에는 S.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Psychoanalysis), A. 아德勒의 개인심리학(Individual Psychology), C.G. 융의 분석심리학(Analytical Psychology)이 있다.

2) C.G. 융의 전집 제5권 *Symbole der Wandlung*의 서문을 참고하라.

3) C.G. Jung(1954), “Über die Archetypen des Kollektiven Unbewußten”, G.W. Bd. 9/I, Par. 3-4.

신화나 민담의 이해를 위하여 ‘집단무의식’ 및 ‘집단무의식’의 ‘원형’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보겠다. 개별 인간은 모두 인간이라는 종(種)의 특징이 개별적으로 드러나도록 이미 정해져 태어난다. 인간이라는 종의 특징을 구현하고 있는 정신 영역이 ‘집단무의식’이다. ‘집단무의식’은 내용적으로 ‘본능(Instinkt)’과 ‘원형들(Archetypen)’로 구분하여 이해해 볼 수 있다. ‘본능’은 주로 전형적인 인간의 행동 양식으로 드러난다. ‘원형’은 “집단적 표상들(représentations collectives)”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상들을 생산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개별 인간은 개인적으로 학습하지 않아도 이미 어떤 식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준비되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무의식’의 ‘본능’과 ‘원형’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선형적 조건이 되는데,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되기보다는 동전의 양면처럼 통한다. 특별히 ‘집단무의식’의 ‘원형’은 심층심리학자들에 의해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정신의 구성 요소로서 간주되었다. ‘집단무의식’은 프로이트가 억압된 정신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간주한 ‘개인무의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집단무의식’의 ‘원형’들은 억압될 수도 없고, 억압되어서도 안 된다. 자아의식은 기본적인 보편적 정신 영역에서 떨어져 나와 개별적 특성을 내세우고 있는 부분 정신 영역이다.

‘집단무의식’의 ‘원형’의 실제성은 전 세계적으로 같은 주제의 정신 현상으로 수렴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민족마다 신화를 갖고 있고, 그것으로 그 민족성을 특징짓는다. 그럼에도 각기 다른 민족의 신화나 민담 등 옛 이야기들에서 유사한 주제들이 등장하는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로써 서로 민족성은 달라도 모두들 공통적으로 보편적 정신, 즉 집단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증명된다.

‘집단무의식’의 ‘본능’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행동하도록 만든다. 말하자면 ‘본능’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 행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강제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저절로 다른 존재가 아닌, 바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형’은 저절로 심상들을 표상하는데, 우리는 바로 그 심상들과 더불어 개별적 정신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또한 그 심상들에 의하여 인간으로서 이념을 실현하게 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정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신의 내용을 갖고 있는 듯하지만, ‘집단무의식’의 ‘원형’이 제공하는 전형적인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개인 인격의 특성도 자세히 비교해 보면, 오히려 대부분 집단 정신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본능’보다 ‘원형’에 더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형’은 일종의 충동의 상(像)으로, 충동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식하는 데 더 용이하다.⁵⁾ 다르게 표현하면, 충동이 본능적 행동 유형이라서 알아차리기 어렵다면, ‘원형’은 이러한 충동의 형상화, 정신의 이념으로 표상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인식할 수 있다.

… 원형은 조절하며, 수정하고, 동기를 유발하면서 의식 내용의 형성 과정에 개입하는데, 취하는 태도는 본능과 똑같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형적 요소들이 충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집단적 형식 원리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상황의 상들이 결국에는 충동의 형상, 즉 행동 유형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이 가능성을 분명하게 반박할 논거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⁶⁾

4) 이는 레비-브뤼흐(Lévy-Bruhl)이 원시적 세계관을 나타냈던 표현이다.

5) C.G. Jung(1954), “Theoretische Überlegungen zum Wesen des Psychischen”, G.W. Bd. 8, Par. 398~399.

6) C.G. Jung(1954), 같은 책, Par. 404.

일반적으로 심상들을 의식적으로 의도하여 생산한다고 믿을 수 있지만, 창조적 작업을 하는 예술가들은 예술 창조의 원천이 자신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창조적 충동에 의해 예술가는 무엇인가 하도록 요구당하는 것이다. 원시인이나 아이들도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지 않고 ‘생각이 난다’고 한다. 오늘날의 성인들은 자신이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 ‘원형’은 일부 주관 정신인 자아의식을 둔화시키거나 활성화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자아의식이 갑자기 고양되어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거나 어떤 이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또한 ‘원형’이 자아의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경우 독자적으로 작용하므로 외부에서 일어나는 신비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주로 종교 체험에서의 누미노제(Numinose) 현상⁷⁾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원형’의 활동으로 일어나는 정신의 현상은 자아의식도 놀라움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객관 정신의 활동이다. 그것은 도저히 개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인격 상태로 만들거나, 심지어는 정신병리적 현상을 야기한다.

E. 노이만은 자아의식을 무의식과 외부 세계를 심상으로 이해하는 기관이라고 표현하였다. 무의식적 정신이 심상으로 형상화 되는 것은, 모두 자아의식으로 하여금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⁸⁾ 본능적 충동들에 대해 흔히 ‘억압한다’고 표현하듯이, 객관 정신인 ‘원형’과 같이 객관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본능적 충동들도 심상으로 전환하여 형상화 된다면 자아의식의 대상이 되고, 마침내는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될 것이다. 심리치료 작업에서 신체화 된 증상들을 이미지로 전환(Imagination) 하도록 유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심상들은 내면 세계의 실체성으로서, 시각과 같은 감각 기관을 통해 감지한 외부 세계의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자아의식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다. 다만 외부 세계의 대상들은 이미 확정된 오성의 개념에 따라 ‘무엇’으로 인식이 가능하지만, ‘집단무의식’의 ‘원형’에서 비롯된 심상들은 확정된 개념에 따른 인식을 할 수 없다. 가장 근접한 개념들을 환기함으로써 대략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는 있으나,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내면 세계의 산물들(심상들)을 우리는 ‘상징(象徴)’이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상징’은 정신의 자발적 산물로서 원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원형에서 비롯된 심상들은 인과적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심혼적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정신의 현상이다.

“... 심혼은 상징들을 창조한다. 상징의 기호는 무의식적 원형이고, 이런 상징이 표현되는 현상은 의식이 획득한 표상들에서 나온다. 원형들은 누미노제를 지닌 정신의 구성 요소들이며 일종의 독립성과 특수한 에너지를 갖추고 있다. 이 힘으로 원형은 그에 어울리는 의식의 내용을 끌어당길 수 있다. 상징들은 변환자(Unformer)의 기능을 한다. (...) 상징에는 암시하고 확신하게 만드는 힘이 있고, 상징은 동시에 그 확신의 내용을 표현한다. 상징이 확신을 주도록 작용하는 것은 누멘, 즉 원형에 속해 있는 특별한 에너지의 힘 때문이다. 원형 체험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충격적’이다. 이런 원형 체험은 당연히 신앙을 낳는다.”⁹⁾

‘집단무의식’의 영향력은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작용하고 있다. 식물이 성장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그것은 의식의 삶에서 개별적 존재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7) das Numinose, 즉 누미노스한 것, 이는 누멘(Numen, 神性)을 형용사화 한 것으로, 정신의 자발적 활성화로 인해 이성적, 합리적 해명이 어려운 경험을 총칭한다.

8) Erich Neumann(2004), *Ursprungsgeschichte des Bewußtseins*, S. 298.

9) C.G. Jung(1952), *Symbole der Wandlung*, G.W. Bd. 5, Par. 344.

요구하고 있다. 고대인들에게는 신화와 민담이 매일의 삶을 인도하는 실제적 삶의 지침이자 조상의 가르침 및 자연의 지혜였다. 어느새 신화와 민담은 우리에게 낯선, 잃어버린 언어, 인류의 아동기의 산물로 간주되어 버렸다. 그러나 조금만 눈여겨보면, 여전히 살아있는 신화와 민담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은 현대적 옷을 입고 TV 속, 인터넷 속, 서적들에서 이야기, 드라마, 문학작품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루머들에서도 작용하고 있다. ‘원형’은 심리 내적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계속 그에 상응하는 현상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번도 신화나 민담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2. 민담의 형성에 관하여

신화 및 민담은 정신의 자발적 활동에 의해 형성된다. 오늘날 우리는 이야기를 문자로 접하지만, 원래 이야기는 모두 심상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야기는 일종의 경험담처럼 전달되는데, 이때 화자는 단순히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활성화 되는 심상적 특성을 향유하게 된다. 실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절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 심상들이 연상의 조직망을 연결하면서 자유로운 유희(Spiel)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신화나 민담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심상들로서 경험하지 못한다. 주로 활자화 된 상태, 즉 언어로 이루어진 문서를 통해 신화와 민담을 접한다. 이로써 원래 이야기가 가진 풍부한 심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고 제약을 받는다.

대다수의 신화학자들은 신화와 민담이 과거의 산물이고, 현대에는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들은 아득한 과거, 인류가 언어를 갖기 전에 생산된 것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신화와 민담은 고대의 산물이라고만 할 수 없다. 개별 정신의 기초에는 언제나 신화적 표상들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대에도 이야기는 여전히 매일 세계 곳곳에서 생성되고 있다. ‘집단무의식’의 ‘원형’들은 매 순간 원형상들을 생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꾸는 꿈, 공상, 감당하기 어려운 심적 사건들, 어떤 사회적 현상들, 심지어 UFO 사건 등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를 수용하는 현대인의 의식 수준이 고대적 수준하고 다르다. 현대인들은 무의식의 자발적 산물들을 충동이나 공상으로 치부하며 억압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형태로 구체화 될 수 없다. 신화와 민담 등으로 알려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심상들을 수용하는 집단무의식의 태도가 요구된다.

민담과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첫 시작은 주로 원형적 사건과 관련된다. ‘집단무의식’의 ‘원형’의 활성화는 한 개인에게 외부의 여러 놀라운 현상으로 경험될 수 있다. 설명하기 어려운 신성, 귀신의 등장 혹은 비전 등 일종의 누미노제의 경험이 된다. 이야기는 강력한 인상으로 각인된 사건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보고될 정도로 시인이나 예술가에게서 감당하기 어려운 창조적 충동의 착상처럼 무엇인가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자신을 사로잡는 심상들, 소위 ‘큰 꿈’이라고 부르는 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러 자발적으로 일어난 원형적 정신 현상에서 이야기는 형성된다.

이야기의 첫 출발은 주로 경험 당사자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경험했는가를 알리거나, 마주친 대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기술하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다. 여기서는 아직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누미노제의 체험자가 직접 여기저기 알리는 것과, 그것을 전해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에 강한 인상을 받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 이야기는 점차 구체화 된다. 여러 번의 전달 과정에서 이미 3인칭의 관점으로 바뀌어 기술된다. 계속 전달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실제적 정황은 생략되고, 이야기의 구성에 필요한 요소들만 선택적으로 남게 되면서, 더욱 구조를 발전시킬 요소들이 점차 보충된다. 여러 단계의 전달 과정에서 첫 체험자의 이름 등의 개별적 사항은 차츰 사라지고, 뇌리에 각인된 주제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조화 된다. 마침내 민담의 시작에서 보듯이, 대부분 ‘옛날 옛날에 어떤 총각이 (...)’ 등으로 가장 보편적이지, 익명의 주인공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된다.¹⁰⁾

분석심리학적으로 이야기의 ‘주제(Motiv, motif)’는 원형상을 의미할 것이다.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주인공은 활성화 된 원형상과의 관계로서 구체화 되어 드러난다. 주인공은 마녀, 괴물, 동물 등과 같이 어떤 영향력을 갖는 객체 혹은 대상과 마주치게 되고, 이로 인해 주인공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여러 화자들이 저절로 그 상황에 처한 주인공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 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들에 대한 반응 및 처치의 내용들을 보충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발전적 변화를 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심상화에 참여함으로써 이야기는 하나의 완성된 구조를 갖추게 된다.

좀 더 심층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야기의 전달 과정에서 화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 정신의 활성화 된 현상, 즉 누미노제 현상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조금씩 보태게 된다. 화자들의 역할은 저절로 무의식적 정신과 관계하고 이해하려는 의식의 태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선 무의식적 정신(원형)이 표명하려는 것을 가능한 허용하여 형상화하도록 돕는 것에 해당한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형상화를 허용하는 태도이다. 이런 화자의 의식적 참여가 있게 되면 일종의 의식과 무의식적 정신과의 통합이 일어난다. 저절로 의식과 무의식적 정신과의 합성(Synthese) 상태가 되는데,¹¹⁾ 이것이 이야기를 내용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더욱 발전시킨다. 민담은 바로 그러한 합성 과정을 통해 원형적 현상의 의식적 수용 및 이해에 해당하는 결말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민담은 결말에서 왕과 왕비의 결혼과 같은 형태로서 의식과 무의식적 정신과의 ‘대극적 합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민담이 구조적으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제대로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이유는, 위와 같이 화자들이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조금씩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게 하여 통합적 이야기 구조를 완성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의 전체 구조는 전형적인 양상으로 구체화 된다. 잘 마무리된 결말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민담 등의 채록 과정에서 이야기 구조를 일부 찌 맞춘 것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담의 이야기 구조는 근본적으로 콤플렉스 및 원형상들이 의식과의 관계에서 변화하고 통합하는 정신 현상의 과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민담의 일부는 실제로 누미노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샤먼들의 누미노제 경험이 무가(巫歌)로서 무속 제의에서 재현되는데, 그것의 일부가 민담으로 알려지게 된 경우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 소개된 《바리 공주》도 그 중의 하나이

10) 예를 들면, ‘김 ○○라는 사람이 □□ 고개를 넘어오다가 △△을 보았는데 (...)’ 라는 표현에서, 차츰 이름은 잊혀지거나 생략되고, ‘어떤 총각이 험한 고개를 넘다가 무시무시한 괴물을 만났는데 (...)’ 등으로 바뀔 수 있다.

11) C.G. Jung(1954), “Theoretische Überlegungen zum Wesen des Psychischen”, G.W. Bd. 8, Par. 403.

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얻어 앓아눕게 된다. 이 상태는 무속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신성이 특정의 개인을 찾아 온 것에 해당한다. 이를 ‘무병(巫病)’ 혹은 ‘신병(神病)’이라고 한다. 분석심리학적으로 ‘신병’은 특정의 원형이 활성화 되어 자아가 심하게 영향을 받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병을 앓는 당사자는 신체적 질병이 아닌데도,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자아의식이 무력화 되고 만다. 무의식적 정신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하여 인격이 붕괴될 위기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때 무의식적 정신의 활성화에 의해 병을 앓는 이는 큰 꿈 혹은 환영을 보게 된다. 이것이 이야기가 될 누미노제 체험이다.

한국의 샤먼들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한 신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신병’을 앓으면, 가족들은 수소문하여 영험한 샤먼을 찾는다. 그 샤먼은 가족의 요청에 의해 병자를 방문하여 ‘신병’임을 확인하면, 날을 정하고 제의를 준비한다. 샤먼과 함께 치러지는 제의에서, ‘신병’을 앓던 당사자는 자신의 상태를 실질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일종의 병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샤먼은 제의를 통하여 ‘신병’을 앓는 이에 게 찾아 온 신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신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름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경험자로서 샤먼이 ‘신병’의 원인이 되는 존재를 특정의 신성으로 명명하는 작업은 자아를 원형상에서 떼어 내어 구분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구분은 자아의식의 붕괴를 막는 치유적 처방이다. 이로써 자아는 무의식적 정신(원형상)과 동일시 되거나 사로잡힌 상태에서 벗어나 의식의 주체로서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활성화 된 무의식적 정신은 신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신병’의 경험자는 회복된 후에 신성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샤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가(巫歌)는 바로 ‘신병’을 앓는 사람의 실제적 경험 및 환영이나 ‘큰 꿈’을 묘사한 것이다. 그것은 주로 신성의 등장, 그 신성의 특성, 신성과 인간의 관계, 경험 당사자의 변화 등을 다루고 있다. 이는 종종 경험 당사자가 죽음의 세계를 다녀옴으로써 죽음을 극복한 내용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당사자가 만난 신성이 인간 세계에 알려지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신병을 앓고 있던 당사자로부터 신성을 구분해 내고, 그 신성에 명명함으로써 저절로 신성이 드러나는 묘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가는 하나의 신성의 탄생을 알리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신의 기원을 알린다는 점에서 무가는 우선 민담이 되기보다는 무속 신화가 된다.

이상과 같이 샤먼의 실질적인 누미노제의 경험은 무속적 제의에서 재현되고, 일부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차 민담으로 알려진다. 신성을 경험했던 샤먼이 제의에서 자신의 경험적 사실을 직접 재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의를 실행하는 다른 샤먼에 의해 암송되어 재현되는 경우가 많다. 세습무에 의해 암송되어 재현되는 것은 마치 신화가 문자적으로 정착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제의에서 거듭 재현되더라도 거의 구조적 변화 없이 그대로 반복된다. 제의에서 재현된 것과 당사자의 체험 등이 사람들과 공유되고 거듭 다른 장(場)에서 이야기됨으로써 비로소 민담으로 알려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누미노제 경험 그 자체의 전달에서는 신성의 모습만 강조될 뿐, 신성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는 잘 다루어질 수가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담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의 전달 과정에서 신성과 인간의 관계가 구체화 되고, 심지어 공동의 작업의 결과가 드러난다. 무가의 경우는 오랜 이야기의 전달 과정이 없는데도 비교적 전체적인 구조가 완성된 결말을 갖고 있다. 이것은 ‘신병’을 앓은 사람이 그 신병에서 회복되는 과정 자체가 치유적 회복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 자체가 결말이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신병’을 앓았던 이가 무의식적 정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식의 태도를 확

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바리 공주》 민담에서도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이야기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신화와 민담의 차이를 좀 더 지적해 보자. 신화의 경우는 여러 사람들의 입을 거치게 되는 민담과 달리 일찍부터 이야기가 문자로 기록된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외디푸스 왕》 신화, 《길가메쉬》 신화, 《헤라클레스》 신화 등에서 보면 결론이 성공적이지 않다. 외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됨으로써 저주를 받은 듯이 보이고, 길가메쉬는 불사의 약을 구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잠이 든 사이 물뱀이 그것을 훔쳐 가서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헤라클레스는 12번의 괴물 퇴치의 과제를 완수하였지만 히드라의 독에 의해 죽게 된다. 이처럼 민담과 달리 신화에서는 성공적 결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문자로 기록되어 정형화 됨으로써, 이야기를 자유롭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식과 무의식적 정신의 합성적 관계를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의 신화들이 그토록 강렬하게 뇌리에 남는 것은, 신화의 주제들이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계속 전달되어질 수 있는 민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러 사람을 거치는 동안 점점 완성된 구조를 갖추게 되어 전형적인 결말을 제시한다. 그래서 민담은 ‘왕과 왕비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로 끝날 수 있다. 언제나 민담에는 신화보다 더 성공적인 결말이 돋보인다.

신화는 신성의 탄생, 성장 및 신성의 특성이 드러나므로, 문자 그대로 신의 이야기로 알려진다. 신화에서 영웅도 등장하는데, 영웅 또한 신성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영웅의 탄생, 성장 및 영웅의 행위 등도 다루어진다. 특별히 영웅에 의하여 국가의 탄생이 있게 되므로, 영웅은 종종 한 민족의 시조(始祖)로 간주된다. 영웅이 결과적으로 한 민족이나 국가의 탄생과 연결되듯이, 영웅 신화는 모두 인간 집단, 민족 집단의 의식화와 관계됨을 시사한다. 다시 강조하면, 신화는 주로 남성신 및 영웅이라는 남성적 인물상을 내세운다. 이는 인간 집단 및 집단 정신의 의식화가 언제나 남성화이자 정신화(Vergeistigung) 및 영성화(Spiritualisierung)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화에서는 여성 주인공의 이야기가 드물다. 만약 신화에서 여성 주인공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모성신의 모습이 대부분이다.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기운들, 대양으로 묘사되는 모성신은 아들신에 의하여 극복되고 만다. 여기서 모성신은 근원적인 무의식적 정신의 조건을 나타내며, 아들신은 원초적 무의식성을 극복하여 집단의 의식성을 획득하는 정신 영역을 나타낸다. 신화적 세계관의 궁극 목적은 인간 집단의 의식성 및 인간성에 이르는 하나의 전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민담의 경우는 신성이 강조되지 않고 왕가(王家)의 이야기, 혹은 아주 하위의 인물, 예를 들면 시골뜨기, 방앗간 주인, 나그네, 농부, 나무꾼, 바보 등 인간이 주인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왕이나 왕자, 공주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원형상이 보다 인간 의식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아주 일반화 된 인물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원형상이 인간성을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인물상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이것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별 의식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고, 무의식적 정신이 보다 더 보편적 인간적인 모습을 반영하면서, 공동의 목적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민담의 세계는 인간의 정신 활동이 의식의 삶에서 실현하려는 목적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담은 신화와 달리 개인의 누미노제의 경험에 기초함으로써 남녀 주인공 모두가 등장한다. 남성 주인공의 민담은 주로 여성들의 누미노제 체험에서, 여성 주인공의 민담은 남성들

의 누미노제 체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민담의 남성 주인공은 여성의 아니무스로서, 여성 주인공은 남성의 아니마로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자 공상을 시작해 보라. 남성의 경우 아름다운 여성(소녀나 공주)이, 여성의 경우는 늙음하고 용기 있는 남성(영웅이나 왕자)이 공상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샤먼들의 ‘신병’에서도 ‘큰 꿈’의 주인공은 거의 아니마, 아니무스에 상응하는 인물일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여성 샤먼은 남성신을, 남성 샤먼은 여성신을 모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무가에서 비롯된 《바리 공주》의 여성 주인공 바리 공주도 남성 샤먼의 아니마일 가능성이 크다. 융은 <전이의 심리학(Psychologie der Übertragung)>에서 연금술사들의 텍스트에서 도입된 이야기의 인물상이 민담의 왕과 왕비와 같은 형상임에 주목하였다. 말하자면 왕은 연금술사의 누이의 아니무스로, 왕비는 연금술사의 아니마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융은 이를 의식의 일방적인 태도에 의하여 무의식적 정신이 심혼적 심급으로서, 즉 자율적인 심혼적 콤플렉스가 되어 투사되거나 심혼적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명하였다.¹²⁾ 마찬가지로 누미노제 체험의 당사자나 화자의 자아의식이 민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심혼적 콤플렉스들이 각기 민담의 남녀 주인공들로 구체화 되는 것이다.

신화는 처음에 주로 우주 천체 및 기상 변화를 반영하거나 신들의 세계를 묘사하다가, 보다 더 인간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영웅 신화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이 보편적인 신성의 특성보다 개별적 신성을 특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듯이, 영웅 신화에서 영웅은 개별 인간과 거의 유사한 면의 개별적 특성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영웅을 개별 인간과 혼돈할 정도가 된다. 하지만 영웅은 원형상이며 신성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신화에서도 원형상이 인간성에 가까운 인물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정신의 활동은 모두 인간 의식에서의 실현을 궁극 목적으로 삼고 있다. 민담에서는 누미노제의 현상이 이야기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개별 인간의 의식적 반응을 반영하게 된다. 그래서 민담의 주인공은 개별 인간이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일반화 되고 보편화 된다. 민담의 주인공은 집단 정신이나 민족 정신을 대표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장 보편적 인간의 삶을 전제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담에서는 남성 주인공은 물론이고 여성 주인공의 등장을 쉽게 볼 수 있다. 덕분에 우리는 신화와 달리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접하게 된다. 이로써 민담에서 여성 인물상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신 활동의 특성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은 민담을 읽는 여성들에게 제시하는 삶의 전형이 된다. 이것은 남성의 아니마가 실제 여성들에게 투사되어, 암묵적으로 원형적 내용을 요구하는 효과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민담의 주인공은 보다 더 일반화 되고 구체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 됨으로써, 개별적 인간성을 실현하는 전형으로 작용한다.

참고로 여기서 민담이 전설과 동화와 구분되는 점을 지적해 보자. 전설은 여러 면에서 민담과 비슷하다. 누미노제의 경험이 특정의 지역과 연관되어 있으면 전설에 해당한다. 신화가 특정의 민족이나 집단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듯이, 전설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적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전설은 종종 그 지역의 특정 지형이 생겨나게 된 기원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된다. 예를 들면 ‘서로를 너무 아끼던 형제가 있었는데, (...) 그래서 ○○ 마을에는 형제 봉이 생겨난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지형은 형제의 형상을 환기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원형상, 즉 신화적 주제를 활성화 시켜서 이야기를 형성하도록 만든다. 만약 이 전설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지역의 특성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12) C.G. Jung(1946), “Psychologie der Übertragung”, G.W. Bd. 16, Par. 438.

그것은 민담이 될 수 있다. 일단 지역을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등장 인물들은 일반화 되고, 주제에 상응하는 결말 부분이 보완되면서 하나의 민담으로 발전할 수 있다.

흔히 민담을 동화로 간주한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구분 없이 그림 형제가 수집한 독일 민담(Märchen)을 동화라고 번역하였다. 민담을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로 간주하여 안데르센이 쓴 동화처럼 여겨 왔다. 안데르센 동화는 안데르센이 창작한 이야기이므로 여러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면서 만들어진 이야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부 사람들은 그림 형제가 이야기를 수집할 때 어린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게 이야기를 재단하고 각색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화 작가들은 이야기를 생산하고 있다. 동화에는 아동에게 들려줄 것을 고려하여 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이나, 교훈적인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가의 개별적 의도와 결론이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이미 지적하였듯이 민담은 정신의 자발적 산물이므로 심상 자체가 갖는 고유한 흐름에 의식의 참여가 있고, 그에 따른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적 결론이 반영된다. 이런 의미에서 작가의 개인적 의도 및 문화 사회적 요구에 따른 도덕적 결말의 내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동화는 여러 측면에서 작가의 개별적 성향에서 비롯된 개인적 요소가 반영된다. 그러나 민담에서 주제의 등장, 그에 따른 의식의 개입 및 이야기의 전개 방식은 개인적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형적 방식으로 제시된다. 이런 점에서 민담은 개인적 산물이 아니라 종족의 산물, 인간 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동화는 아동들에게 들려줄 이야기일 수 있으나, 민담은 전(全) 인류가 항상 옆에 두고 생활해야 할 이야기이다.

일부 동화는 민담만큼이나 널리 알려진 경우가 있으며, 우리가 기억하는 이야기가 민담이 아니라 동화인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것은 동화가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민담처럼 되어 버린 것이거나, 그 반대로 동화 작가가 신화나 민담 등에서 알려진 모티브를 이용하여 작품을 생산한 것일 수도 있다. 혹은 보다 심층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작가에게 착상된 창조적 이념이 원형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작가나 예술가의 창조적 생산이 ‘집단무의식’의 ‘원형’에 기인한 것일 경우는 누미노제 경험과 동일한 것이 된다. 작가나 예술가는 자신의 개인적 의도나 의식적 고안에서 예술작품을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난 이념, 이미지 등을 형상화 하여 외부에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화 작가가 이야기 속에서 묘사하는 주제 자체는 신화적, 즉 원형적 특성을 갖게 될 수 있다. 그 주제가 전체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작가 개인의 의식적 정신과의 관계를 통하여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민담과는 다른 양상으로 마무리된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동화는 소설, 극 등 다른 문학작품과 마찬가지로 작가의 개별적 의향이나 의도, 개인적 이해에 의해 결말을 맺게 된다. 이에 반해 민담은 여러 사람의 의식적 참여 과정들을 통하여 보편적 이념이 실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 결말을 맺는다. 안데르센 같이 위대한 동화 작가가 창작한 동화에서 종종 일반 민담에서 결코 볼 수 없는 결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다시 강조하면, 민담의 형성이 누미노제의 체험에서 비롯된다고 할 때, 신화나 민담을 과거의 산물로만 간주할 수 없다. 개별 인격이 기초하고 있는 ‘집단무의식’의 ‘원형’들에 의한 누미노제의 체험은 언제나 가능하며, 따라서 민담도 언제 어디서든 생산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인은 정신의 산물이 모두 의식의 활동에서 비롯된다고 믿거나, 의식적 정신 활동에 주력하기 때문에 ‘원형’에서 비롯된 정신 현상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근대 이전의 세계관에서 보면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기거나, 몸에 병이 나면 어떤 외부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고려하고,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현대의 관점에서는 집안의 나쁜 일을 외부의 객관적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며, 질병에 대

해서는 박테리아 혹은 바이러스의 공격과 같은 실질적 원인을 찾는다. 심지어 매일 꾸는 꿈도 그냥 의미 없는 ‘개 꿈’일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어느새 저절로 상상력이 동원되고, 여러 가지를 연상하여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에 자극을 받고, 또한 그것에 동참하면서 민담을 생산하고 있다. 어쩌면 민담은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득한 우주의 행성에서 찾아온 생명체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¹³⁾ 그럼에도 민담은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생성되고 있다.

3. 민담의 구조

민담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중심 인물상과 주변의 인물상들의 관계로서 드러난다. 분석심리학적으로 중심 인물상을 자아(의식)로, 주변 인물상들을 자아(의식)와 관계를 맺으려는 무의식의 태도로 간주하여 읽을 수 있다. 이때 주변 인물상들의 특징은 원형상이 갖는 보상적 태도가 두드러진다. 성향이 다른 두 정신 요소가 관계함으로써 중심 인물상은 물론이고, 주변 인물상들도 함께 변화하게 되는데, 이것이 민담의 구조에서 잘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정신의 자발적 산물들, 즉 꿈이나 신화 및 민담은 모두 드라마(drama)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드라마 구조는 사건을 묘사할 때 저절로 나타나는 이야기 형식 혹은 구조에 해당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도입부, 전개부, 절정부 및 해결부로 나뉘어진다. 이 네 단계의 구조를 자아(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로서 설명해 보자. 우선 이야기의 도입부 혹은 제시부(Exposition)에서는 중심 인물상, 즉 주인공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예를 들어 서양 민담이라면 주로 왕이 병이 들어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왕의 후사가 없어서 왕위를 물려줄 수 없다거나, 왕이 아끼는 소중한 황금사과 나무에서 황금사과가 매일 밤 사라지는 상황 등으로 그려진다. 이것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의식의 삶을 이끌어 가는 지배원리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로써 전체 의식의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알린다. 왕가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느 고립된 곳에 홀어머니 손에 자라난 소년, 소녀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집단과 동떨어져 살고 있는 소년, 소녀는 기존의 집단적 지배원리에 물들지 않은 신생의 남성 요소, 여성 요소에 해당한다. 이들은 집단의 삶을 치유하게 될 보상적 가치의 인물상이면서, 동시에 개별 인격의 쇄신을 위한 새로운 인물상이다. 이처럼 도입부에는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 주체의 문제와 처한 상황이 묘사되고, 새롭게 부상하는 정신 요소를 주인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야기를 접하는 사람들은 주인공과 저절로 동일시를 하거나 감정 이입이 된다. 이런 점에서 주인공은 의식을 대변하거나 의식성을 획득하게 될 정신 영역에 해당한다.

이제 이야기는 사건의 전개, 즉 사건의 연루됨(Verwicklung)의 단계에 이른다. 민담에서 주인공 혹은 중심 인물상과 관계하는 주변 인물상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들은 주로 마녀처럼 마술적인 영향력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왕과 같은 주인공 혹은 중심 인물상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더 이상 주도력을 갖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나타난다. 이렇게 등장하는 주변 인물상들은 주인공을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욱더 치명적인 어려움에 빠뜨린다. 주인공 혹은 중심 인물상 앞에 나타난 인물상들은 의식의 태도에 반응하는 무

13) C.G. 융의 <현대의 신화(Ein moderner Mythos)>(1958)를 참고하라.

의식적 정신 요소들의 배열(Konstellation)로 이루어진 것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주인공과 관계를 맺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이런 배열, 즉 활성화 된 원형에 의하여 주인공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처럼 전개부에서는 자아(의식)의 태도에 상응하는 무의식의 반응 및 무의식적 정신의 태도 표명이 구체화 된다. 이에 대해 아직 중심 인물상 혹은 주인공은 어떤 반응을 할지 드러나지 않는다.

다음은 절정(Peripetie, Kulmination) 단계인데, 소위 주인공 혹은 중심 인물상이 주변 인물상들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기는 서로의 반응이 반영된다. 그것은 만남 및 관계에 의하여 발생된 일종의 충격, 갈등, 불균형, 알력 등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묘사된다. 절정은 정서적 반응이 고조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반전이 있고, 그에 따른 주인공의 다양한 심적 반응도 함께 묘사된다. 주인공 혹은 중심 인물상과 주변 인물상들과의 관계, 즉 자아의식과 무의식의 실질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절정에서 둘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힘의 재분배가 일어나도록 서로 조정된다. 주인공은 물론이고 전체 상황은 변화를 맞이한다.

마지막 해결부(Lysis)는 주인공 혹은 중심 인물상이 주변 인물상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이다. 주인공 혹은 중심 인물상은 주변 인물상들의 영향으로 변화를 맞이하여 새로운 의식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결말은 둘의 조화로운 관계 및 결합으로 간주된다. 분석심리학적으로 이를 ‘대극의 합일(coniunctio oppositorum)’이라고 부른다. 민담에서는 주인공 혹은 중심 인물상이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때로는 주인공이 왕위에 올라 새로운 집단의 대표로서 통치 이념을 실현하게 된다. 둘의 관계에서 갈등이 해소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정신의 지평, 새로운 의식의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이상의 민담의 구조는 전형적인 심상의 전개 방식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단 이야기뿐 아니라, 노래를 한 곡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혹은 시(詩)를 쓸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전개된다. 예를 들어 음악이나 시에서도 언제나 주제가 드러나기 전 예비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도입부가 있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주제가 드러나는 전개부가 있다. 주제가 구체적으로 묘사되면서 점차 정서적으로 고양되어 정점에 이르는 절정부에서, 서서히 극적으로 드러난 정서를 거두어들이고 정화된 의식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해결부가 있다. 이러한 전개의 이면에는 원형상 및 콤플렉스가 갖고 있는 정서적 측면이 큰 역할을 한다. 콤플렉스나 원형이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형상적으로 혹은 외형적으로 드러내어 폭로하는 전형적 방식에 따른 것이다. 정서적 묘사가 충분히 이루어짐으로써 의식이 무의식적 정신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의식은 고양된 분위기, 고조된 감정들, 이전까지 의식하지 못했던 기분 등에 젖게 되어서, 의식의 경계를 넘어선 어떤 정신 영역으로 이끌린다. 해결부에서 다시 정상의 의식 상태로 마무리되지만, 무엇인가 이전과 다른 분위기와 의식의 수준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예술을 삶 속에 끌어들이는 이유이다. 자아의식은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어떤 것을 환기하거나, 정서적 동화에 의하여 의식성이 더 고양되거나, 정화된 심적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 우리가 꾸는 꿈도 민담과 마찬가지로 드라마 구조를 갖고 있다. 낮의 활동을 담당한 자아에게 무의식적 정신이 반응하면서, 전체 정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이에 자아 혹은 의식이 참여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언제나 또 하나의 이슈로 남는다. 자아 혹은 의식의 참여가 없더라도 원형은 자신의 존재를 자발적 정신의 산물, 그의 현상으로 드러낸다. 다만 자아 혹은 의식의 참여가 없으면 해결부가 제대로 제시되지 못한다. 중

중 해결부가 없는 꿈들의 경우 악몽이 될 수 있다.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관계하지 않으면, 무의식적 정신이 일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꿈 자아는 무엇인가 침범해 오거나 위협하는 것처럼 경험하게 되고, 그것에 전혀 대처할 수 없어 놀라워하면서 해결부 없이 잠에서 깨고 만다. 이것은 누미노제 현상을 맞이하여 놀라움과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과 같다. 자아 혹은 의식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상태가 되면 그 태도가 반영되어 해결부에서 드러난다. 실제로 꿈에서 자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상황을 잘 처리하여 마무리가 되면 깨어나서도 자아는 스스로 이전과 다른 분위기를 맞출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민담은 물론이고 꿈에서도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적 관계에 따른 결과가 반영되어 제시된다.

4. 민담의 해석 작업

신화와 민담과 같은 옛 이야기들은 그대로 이해되어질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옛 이야기들은 이해할 수 없는 원시적 산물, 인류의 유아기적 산물로 간주되어 왔다. 신화는 이미 문자로 정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텍스트였다. 이에 반하여 민담은 우선 채록되어야 했고, 비로소 모티브의 분류가 이루어졌으며, 마침내는 해석을 위한 텍스트로 주목받았다. 신화에 비해 민담은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오랫동안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였다.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즉 동화로 알려져 있었다. 20세기에 이르러 심층심리학자들에 의해 민담도 신화에 상응하는 관심을 받게 되면서, 비로소 다양한 해석 작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분석심리학자들은 일찍부터 민담이 보편적 심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그것을 신화와 함께 중요한 정신의 현상으로 다루어 왔다. 오늘날 전 세계의 **융** 연구소에서는 교육 수련 과정 중 반드시 민담을 이해 및 해석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그래서 20세기 후반부에 시도된 민담 해석은 대부분 분석심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민담을 읽으면서 그 자체로 심상들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따라가노라면 나름대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다. 심지어 아이들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껏 상상하며 아이들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민담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징적 현상들이 펼쳐져 있다. 이야기의 이해를 위해서는 상징을 해석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징을 이해할 수 있는 심층심리학적 해석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융은 상징의 이해를 위하여 언제나 ‘확충(Amplifikation, amplificatio)’을 제안하였다. 쉽게 말하면, 비교를 통하여 상징을 풀어 보려는 태도이다. 비슷한 것 및 연관된 것들을 나열하여 그것이 공통적으로 지시하는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다. 이것은 모르는 문자를 해독할 때 그 문자의 적용의 예들을 여러 개 나열해 놓고 하나의 의미를 규정해 보는 방식에 해당한다. 그래서 **융**은 확충을 ‘역사적 유비’라고도 표현하였는데,¹⁴⁾ 상징적 현상들을 종교, 문화적 사건들의 비슷한 예들을 모아서 역사적 맥락에서 비교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 되기 때문이다. 무의식적 정신의 형상화에서도 ‘확충’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주제를 의식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 주제에 상응하는 전형적인 형상적 특징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룻밤에 꾸는 꿈들은 여러 장면이 되더라도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무의식이

14) C.G. Jung(1940), “Zur Psychologie des Kindarchetypus”, G.W. Bd. 9/I, Par. 266~267.

의식에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형상적 시도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자발적 확충(spontane Amplifikation)’이라고 한다. 이러한 확충의 작업은 민담의 해석에서 특별히 유용하다. 예를 들면 첫 꿈에 개가 아픈 모습으로 묘사되고, 이어서 곧 꿈에 어머니가 아프다면 개와 어머니는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런 중복된 묘사에 의하여 아픈 어머니는 외부의 개인 어머니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상징 사전에서 ‘개’에 대해 찾아보면 모성신에 속하는 동물이거나, 모성신 자신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오히려 꿈꾸는 당사자의 신체적 상황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한 주체의 다양한 표현들이 보다 용이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상징은 의식과 무의식의 공동 작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합리적 요소가 언제나 함께 한다. 무의식이 실제적으로 심상의 생산 주체이지만, 의식이 이를 감지하고 최종적으로 형상화를 허용하지 않으면 알려질 수 없기 때문에 공동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술가의 작업에서 창조적 충동 및 작상이 생겨나면 예술가는 숙련된 기술을 동원하여 작품이 되도록 형상화를 의식적으로 피하게 된다. 상징은 언제나 생산하는 사람의 의식적 의도를 넘어서 무엇인가로 향하도록 이끄는 것이고, 그 너머의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 예술가는 작품의 생산에 참여하지만, 자신이 생산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신도 감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힘을 빌어 작품의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작품의 생산과 이해는 서로 다른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민담의 형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술작품의 이해와 마찬가지로 상징의 해석이 필요하다. 심층심리학적 해석 작업에는 무의식을 해명하는 견해의 차이에 의하여 대략 두 가지의 방법론이 두드러진다. 이는 ‘인과적(환원적)-분석적 해석’ 방법과 ‘목적적(종합적)-구성적 해석’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⁵⁾

전자의 작업은 가장 일반적으로 상징 해석을 시도하는 태도이다. 특별한 심층심리학적 훈련이 없이 심상들을 상징으로 간주하면서, 그것의 감추어진 의미를 찾으려 한다. 이는 심상의 감추어진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주로 원인이 되는 정신적 요소를 찾는 작업이 된다. 흔히 어떤 형상의 상징이 있으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저절로 ‘이 형상이 어떻게 생겨났지?’라고 떠올리며, 원인을 찾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처럼 상징 형성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이 분석적 해석 작업이다. 예를 들어 무서운 동물 형상이 표현되어 나왔다면, 이를 내면의 상태로 환원하여 상상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본능적 요소를 원인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 원인을 내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제 동물원에서 ○○를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외부의 사실을 환기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해석 작업은 주로 ‘인과적(환원적)-분석적 해석’을 적용한다. 말하자면 심상들, 즉 상징들을 감추어진 성애적 욕망, 혹은 근친상간적 욕망을 표명하려는 다양한 형상화로 해명하는 것이다. 신화와 민담의 이해에서도 인과적(환원적)-분석적 방법이 적용되면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신화 《외디푸스 왕(Rex Ödipus)》은 가장 모범적 해석의 예에 해당할 것이다. 환원적-분석적 작업은 심상들, 상징들에 의미를 규정해 줄 소위 개념이 없으므로, 형상의 원인이 되는 정신 요소를 밝혀 내어 그것을 해석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심상의 해석적 이해가 되기보다는 심상의 형성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

용은 무의식적 정신 활동의 이해, 상징의 해석에서 ‘인과적(환원적)-분석적 해석’을 가능한 지양한다. 무엇보다 형상화를 시도한 정신 요소, 즉 원인을 찾는 인과적(환원적) 해석 작

15) C.G. Jung(1916), “Die transzendente Funktion”, G.W. Bd. 8, Par. 147~148.

업은 언제나 성애적 욕망을 감추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형상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기호(Zeichen, sign)가 되기 때문이다. 이미 성애적 욕망이라는 의도를 숨기고 의식의 장에 허용될 수 있게 다양한 형상화를 시도한다는 해명이므로, 이는 모든 심상들이 이미 내포된 의미를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상징은 기호와 다르다. 상징은 기호처럼 의미가 정해져 있지 않다. 오히려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기 위하여 형상을 취한다. 그런 형상적 시도로서 의식이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선 어떤 것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심상을 기호로 간주하고 환원적으로 이해하면, 해석 작업은 이미 알고 있거나 추론 가능한 것들만 밝히게 된다. 그러나 상징은 반드시 의식을 환기시키는 제3의 요소를 드러낸다.

그 밖에 ‘인과적(환원적)-분석적 해석’은 주로 원인이 되는 정신의 요소를 찾는 과정에서 대부분 개인이나 집단의 과거사로 환원하게 된다. 심상을 형성한 원인이 되는 정신 요소로서 주로 과거의 기억을 제시한다. 어쩌면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심리치료 현장에서 개인의 과거사를 환기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개인이 표상하는 정신의 산물들, 증상들에 대해 모두 과거사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 활동은 의식의 삶에서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신의 기초(집단무의식)에서 비롯된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에서든 집단에서든 과거 환원적 이해는 부분적으로만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신화와 민담의 제작자는 개인이 아니므로, 소급하거나 환원할 개인의 과거사가 없다. 그럼에도 정신 분석학적으로 신화나 민담을 해석할 때 인류의 아동기로 환원하여 일반화 하고, 아동기의 근친상간적 주제를 강조하여 해석한다. 신화와 민담을 생산하는 주체가 아동이거나, 신화와 민담이 인류의 아동기의 산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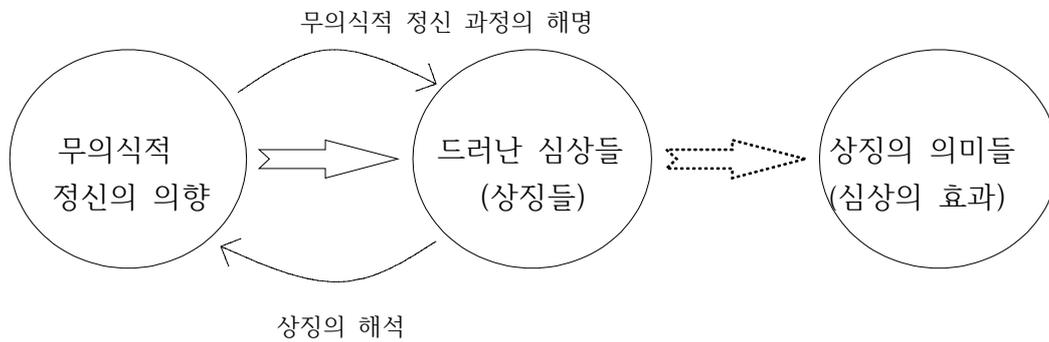
신화와 민담은 인과적 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정신의 활동은 무엇인가 되려는 생명 활동처럼 의식화 되거나 실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목적적(종합적)-구성적 해석’의 방법론은 원인보다는 심상의 의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작업이다. 민담에서 주인공을 괴롭히거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주변의 마녀나 괴물들조차도 그들의 고유한 목적과 의도에 따른 것이다. 그들의 추적과 위협이 동인이 되어 주인공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과 갈등하고 투쟁하면서 주인공들은 성장적 변화를 하게 된다. 계모가 진실 딸에 대해 행하는 악덕적인 행위도 모두 성장과 성숙을 촉진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주인공의 여러 반응 또한 심상을 이해하는 의식의 태도에 해당한다. 우리는 때로는 해석을 가하지 않아도 주인공이 다양한 방식으로 주변 인물상과 관계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의식적 정신의 반응 및 이해로서 간주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목적적(종합적)-구성적 해석’의 입장에서는 심상들의 생성 원인보다는, 심상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목적의미(Zwecksinn)를 묻는 해석을 시도한다. 이런 작업에는 심상의 원인이 되는 과거사로 환원할 필요가 없다. 이미 지적했듯이, 정신의 현상들은 무엇인가 의식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형상화 된 것이고, 자아의식에 이해되기를 바라고 있다. ‘인과적(환원적)-분석적 해석’ 작업이 정신의 구성 요소들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라면, ‘목적적(종합적)-구성적 해석’ 작업에서는 각 구성 요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기능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민담의 해석은 원형상들이 실제로 자아(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또한 민담을 목적적-종합적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무의식적 정신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실현하려는 것인지 잘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심층심리학자들의 작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무의식적 정신 과정을 해명하는 것으로, 주로 무의식적 정신이 형상화가 되어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의 과정을 밝히는 작업이다. 또 다른 하나는 마침내 심상으로 드러나게 된 형상들을 상징이라고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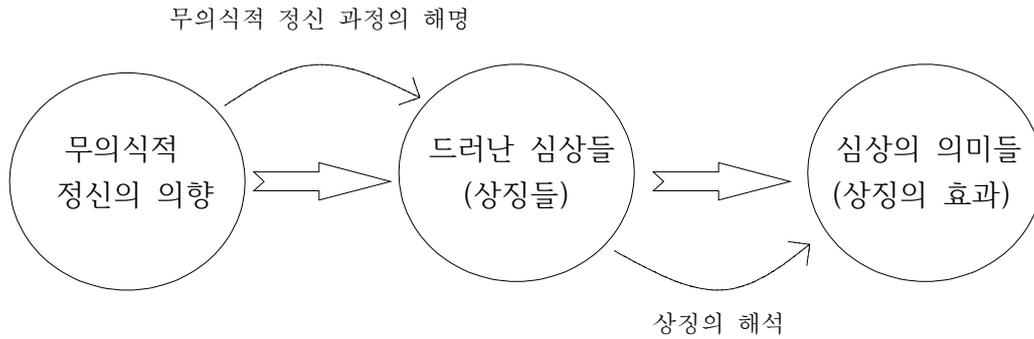
르고, 그 상징을 해석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심상 혹은 상징의 해석 및 이해 작업은 전자의 무의식적 정신 과정을 해명하는 작업과는 다르다. 해석 작업은 상징의 이해 및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목적의미를 찾아야 한다.

‘인과적(환원적)-분석적 해석’ 작업은 두 가지 작업이 구분 없이 이루어진다. 어떤 형상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면 무의식적 정신 요소가 원인이 되어 그런 형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형상화 과정을 해명한다. 그러고서는 해석 작업에서도 정신의 현상을 환원적으로 적용하여 원인이 되는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을 심상의 의미로 제시한다. 이와 같이 환원적 작업에서는 두 작업이 서로 구분되지 못한다. 그래서 실제 분석적 해석 작업에서는 새로운 사실이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 거의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원인으로 밝히게 될 뿐이다. 또한 원인을 찾는 작업은 실제의 현상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추론이거나 가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심적 요소로 환원하는 해석은 특정의 이론으로 귀결된다. 상징들을 정신의 실제적 현상으로서 이해하기보다는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본능적 욕망’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이론적 해명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인과적(환원적)-분석적 해석〕

심층심리학적 작업으로서 무의식적 정신 과정을 해명하는 것과 상징의 해석 작업은 서로 다르다. 상징 해석 작업은 실제로 무의식적 정신이 형상화를 시도하여 의식(자아)에게 미치려는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목적으로 그런 형상화를 시도했으며, 그것이 의식(자아)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 하는지 찾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전혀 해석을 가하지 않고 순수하게 민담을 들어 보면,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일부는 의미 및 의도를 알아차리게 된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아차려진 것들은 환원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형상들 자체가 강한 정서 반응을 야기하여 의식을 끌어들이고 동화하게 만든 것이다. ‘목적적(종합적)-구성적 해석’은 그런 심상의 효과를 현대 심리학의 언어로 옮기는 작업에 해당한다. 목적론적 관점은 가능한 심상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목적적(종합적)-구성적 해석〕

그 밖에 민담의 해석을 위하여 한 가지 더 첨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해석 작업은 ‘주관 단계(subjektive Stufe)의 해석’과 ‘객관 단계(objektive Stufe)의 해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관 단계의 해석’은 민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모두 내면의 정신 요소에 상응하는 형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로써 외부 대상들을 환기하지 않고 정신의 구성 요소들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마녀, 심지어 동물들도 모두 우리의 내면에 살아 있는 심혼적 요소들에서 비롯된 원형상들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객관 단계의 해석’은 민담의 등장 인물들을 모두 외부의 대상으로 환원하여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계모를 실제의 계모로 이해하는 것과 같다. 민담에는 마녀와 같이 현실에 없는 형상들도 등장하며, 심지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나무꾼, 사냥꾼, 이발사 등도 실제의 외부의 인물들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객관 단계의 해석’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민담은 외부의 실제의 세계가 아니라, 심상의 실제 세계이므로, 심적 사실로서 체험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관 단계의 해석’은 단순히 정신 요소를 찾는 환원적 작업이 아니다. 오히려 각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기능하고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 다루게 될 민담들은 주로 ‘주관 단계의 해석’으로 이해될 것이다.

5. 민담의 목적의미

분석심리학자들이 신화와 민담에 주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신화와 민담에는 무의식적 정신의 활동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정신의 활동, 특히 무의식적 정신의 활동은 그 자체 고유한 내재적 법칙에 따르며, 또한 그 활동성은 하나의 목적의미를 지향하고 있다. 인간의 집단무의식은 정신 활동뿐 아니라 신체의 움직임까지 만들어 내는 일종의 생명력 같은 것이다. 그것은 인간 집단에서 인간성을 꽃피우게 만들며, 개별 인간에서는 전(全)인격적 실현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당연히 그것의 목적은 개별 인간에서 실현되어야 할 정신의 이념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인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이념으로 제시된 바로 그것이어야 할 것이다. 신화나 민담의 목적의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담을 아동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즉 동화로 간주하고 있다. 민담에 대해 주로 권선징악을 다루고 있으면서, 선량하고 도덕적 인간이 되도록 가르치는 이야기로 알고 있다. 아득한 시절부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는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민담은 조상 대대로 인간이 인간됨을 어떻게 실현해 왔는지 들려주어 전체 인간성을 환기시키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별 인간의 가치 및 인간 집단의 이념을 실현하도록 가르쳐 온 것이다. 비록 합리적인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인간으로서 무엇을 극복하고,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아차리게 된다. 민담은 권선징악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민담은 아동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인에게 더 필요한 것이다.

매일 밤 꾸는 꿈은 신화나 민담의 개별적 표현에 해당한다. 꿈의 상당한 부분이 개인적 특성에 의하여 채색되지만, 그 형상들의 기초에는 언제나 '집단무의식'의 '원형'이 작용하고 있다. 매일의 꿈은 형상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신화나 민담처럼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것은 의식이 꿈의 심상들을 상대적으로 선택적으로 감지하고 단편적이거나 파편적으로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무의식적 정신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면 인상 깊은 꿈의 상들이 등장한다. 이때의 심상들은 대부분 원형적 특성이 두드러져서 저절로 신화적이라고 표현하게 된다. 이런 신화적 심상들은 언제나 꿈꾼 사람의 뇌리에 남아서, 의식적 정신의 이해를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실행에 옮기도록 만든다.

그러면 민담에서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살펴보자. 의식적 정신이 주도하지 않는 경우에 무의식적 정신은 스스로 의식적 정신을 유도하는 기능을 발휘한다.¹⁶⁾ 말하자면 의식에 미리 가능성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방향이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신화와 민담의 경우에서 이를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아주 시골에서 고립되어 있는 시골뜨기, 아무 것도 모르는 순진한 바보 등인 경우, 주변 인물들이 주인공을 부추겨서 사건에 끌어들이고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든다. 마침내는 그것을 수행하면서 겪어 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게 한다. 기본적으로 무의식적 정신은 형상화와 의식화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민담은 정신의 쇄신과 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담이 왕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왕이 병이 들거나 혹은 왕의 권위를 보증하는 왕가의 보물이 사라지고 만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바보, 시골뜨기 등이 생명수를 찾거나 왕가의 보물을 되찾는다. 이때의 바보, 시골뜨기는 주도하고 있는 지배원리에서 벗어나 있던 존재로서 집단에서든 개인에서든 새로운 요소로서 기능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한다. 바보, 시골뜨기는 심지어 왕위를 물려받고 새로운 지배원리로서 부상한다. 바보, 시골뜨기가 새로운 왕이 되는 왕위의 교체가 일어나 낡은 정신의 쇄신 및 갱신이 이루어진다. 민담의 시작에서 비록 왕이 문제가 있는 상태로 그려지더라도, 그 왕은 그러니까 한때 통합된 인격 전체를 보증하던 상징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주도하는 지배원리가 의미와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자, 새로운 상징이 생겨나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민담의 묘사에서 보면 인간의 정신은 결코 정지한 상태가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로서 끊임없이 변화와 쇄신을 거듭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민담에서 바보, 시골뜨기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 반드시 여성 요소를 함께 끌어

16) C.G. Jung(1928), "Allgemeine Gesichtspunkte zur Psychologie des Traumes", G.W. Bd. 8, Par. 492.

이를 '예시적 기능(prospektive Funktion)'이라고 부른다.

들여 왕과 왕비의 한 쌍이 된다. 이처럼 정신은 언제나 소위 ‘대극의 합일’을 추구하고 있음을 형상적으로 보여준다. ‘대극의 합일’은 개별 인간에서든 집단에서든 서로 분열되어 있던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전체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합의 요구는 의식을 주도하는 정신이 일방적으로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오히려 전체 정신은 무의식적 정신의 흐름에 의식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무의식적 정신이 의식화를 추구하는 것도 모두 전체 정신의 공동 목적을 의식에서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민담에 등장하는 인물상들은 각자 자신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사악한 마녀는 마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고, 심지어 동물도 고유한 형상적 특성으로 드러나야만 한다. 민담의 모든 인물상들은 그 자체로 합목적적인 것이다. 어떤 경우든 무의식적 정신은 결코 지리멸렬하지 않으며, 억압되어야 할 본능적 충동도 아니다. 오히려 의식이 이에 참여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동떨어져 있을 때 일방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민담에 등장하는 모든 주변의 인물상들은 어떤 식으로든 주인공에 접근하고자 하고, 영향력을 가지려 한다. 이것은 무의식적 정신이 끊임없이 의식의 빛에 접근하여 의식과 더불어 인간성을 실현하려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민담의 목적의미를 현대적 관점에서 강조해 보자. 근대 이후 우리의 개별적 자아의 의식은 스스로 전체 정신을 대변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시민 사회가 발전하면서 개인적 가치가 매우 부각되므로, 집단 사회에서 직업적 역할이 곧 한 개인의 인격을 대신하는 것이 되었다. 대부분 인격의 성장과 발달을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유능함을 발휘하는 것과 동일시한다. 하지만 정신은 학습된 내용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인간의 인격적 성숙은 지적 능력과 상관이 없다. 분명 우리 모두는 사회적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다. 더구나 현대의 집단 사회는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처럼 개인에게 엄청난 요구를 한다. 한 개인이 그 요구에 부응하여, 특정의 어떤 직업을 가지려면 막대한 시간을 들여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런 엄청난 노력 때문에 사회적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매일 밤 우리는 꿈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일깨우는 무의식적 정신의 메시지를 단편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낮 동안 의식의 활동 사이에 잠깐씩 ‘이건 아닌데 ...’라고 중얼거릴 수 있으나, 이것도 스스로 쓸데없는 생각이라며 지나쳐 버린다. 그래서 심층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현대인들의 의식적 정신이 자신의 뿌리와 단절된 상태라고 진단해 왔다. 이제 우리의 누미노제 체험은 아주 낮은 것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과거의 선조들이 제시하던 종교적 환상, 비전들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사소한 공상들, 혹은 외부의 사건들, 우연히 나타난 낮은 것, 하찮은 것들이다. 그럼에도 이상의 사소하고 낮은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는 현대인의 의식에 새로운 전망을 열어줄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요구와는 다른, 원래의 인간성 속에 숨겨진 삶의 비밀을 환기시키는 작은 단서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민담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으면, 자연스럽게 각 개별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성을 완성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민담을 통하여 오히려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 혹은 ‘우리’와 구분하게 된다. 인간의 삶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이미 정신에 내재하고 있는 인간 정신의 궁극 목적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민담에 의해서 보다 총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민담의 세계에서 제시하는 인간은 분명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상화 하는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민담의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이상의 인간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현대에 이르러 신화와 민담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가는 것은 결코 우연한 반응이 아니다.

참고문헌

Gesammelte Werke von S. Freud, S. Fischer Verlag, 1976(1940):

S. Freud, 'Das Unbewußte(1915)', in G.W. Bd. 10

' Zur Geschichte der psychoanalytischen Bewegung(1914)', in G.W. Bd. 10

Gesammelte Werke von C. G. Jung, Walter Verlag, 1979(1971):

C.G. Jung, Symbole der Wandlung(1952), G.W. Bd. 5

'Über die Psychologie des Unbewußten(1943/1966)', in G.W. Bd. 7

'Die Beziehungen zwischen dem Ich und dem Unbewußten(1928/1966)', in G.W. Bd. 7

'Die Struktur des Unbewußten(1912)', in G.W. Bd. 7

'Theoretische Überlegung zum Wesen des Psychischen(1947/1954)', in G.W. Bd. 8

, 'Über die Archetypen des kollektiven Unbewußten(1935/1954)', in G.W. Bd. 9

, 'Über den Begriff des kollektiven Unbewußten(1936)', in G.W. Bd. 9

, 'Über den Archetypus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Anima-Begriffes(1936/1954)', in G.W. Bd. 9

Henry F. Ellenberg, Die Entdeckung des Unbewußten, Verlag Hans Huber Bern, 1973.

Robert Avens, Imagination is Reality, Spring Publication Inc. 1980